

혁신과 창의력의 KMEDC. 그곳을 다녀오다

일 시 : 2013년 7월 3일 ~ 5일	컴퓨터공학과 김형진
장 소 : 대천 한화리조트	
주 최 : 전북대학교 공학교육 거점센터, 공주대학교 공학교육 혁신센터	

7월 3일. 나는 융복합 설계 캠프(KMEDC)에 가게 되었다. 가기 전 드는 마음가짐은 '3일 동안 잘 쉬다가 오면 되겠지...' 정도의 가벼운 마음가짐이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슴에 품은 채 도착지인 대천에 다다랐고, 여러 학교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각각의 조를 이루어(6명씩 학교별. 학과별. 공학도 4명과 주최 측 학교의 디자인과 학생 2명으로 이루어짐) 총 12조가 되었고, 각 조로 나뉘어 자리에 착석한 순간. 그 순간부터 융복합 설계 캠프의 진정한 첫 날이 시작되었다.

처음 조원 모두가 착석하였을 때의 적막감이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했었다. 이때 모두에게 든 생각은 '이 사람들과 3일간 보내며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이루고, 느껴야겠다!!' 이러한 것 보단 '아... 어찌지? 괜히 왔나?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이었던 것 같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고, 모두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융복합 캠프의 첫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 고민은 '조금이라도 이런 대회들도 해봤고, 나이도 연장자에 속하니(KMEDC는 3학년 위주의 대회였으므로) 내가 잘 이끌어서 이들을 결속해야하나'와 '누군가 나서겠지. 나 하나쯤 조금만 참고 가만히 있으면 3일이 편한데...'이었다. 결국에는 내가 먼저 나서서 소개를 하고 서로간의 대화를 유도하며, 어떤 조보다 소통이 원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였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하였던가.. 노력만큼이나 우리 조는 어떤 조보다 빠르게 소통이 되는 조로 변하고 있었다.

그렇게 각 조들이 각각의 방법으로 결속력을 다지는 동안 융복합 설계 캠프의 첫 행사인 '공학 설계를 위한 창의적 마인드' 특강이 시작되었다. 이 특강은 우리에게 보다 창의적인 마인드와 보다 넓은 시선을 심어주는 강의였다. 이 강의를 들으며 나의 마음가짐은 '우리 조를 잘 이끌어가며 행사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로 점점 바뀌었다. 그런 생각들을 다듬는 동안 강의를 끝나고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인 주제 정하기 및 조장 선출이 시작되었다.

우리 조의 조장 선출은 생각보다 빨랐다. 내가 우리 조의 소통을 이끌어서일까? 조장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얻게 되었고, 조의 명칭으로는 9조인 우리 조의 숫자와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리자는 의미를 섞어 '은하철도 999'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본격적인 조의 주제 결정에 앞서 4가지 키워드를 뽑게 되었는데, 우리 조는 '제주도'와 '여성', '60 ~ 80세', '바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 기법, SWOT분석, 4P전략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주제 결정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렇게 토론한 결과 'AirHouse'라는 주제가 결정되며 밤이 저물어갔다.

7월 4일. 둘째 날의 아침이 밝았다. 둘째 날은 본격적인 설계 및 제작을 하는 날이었다. 첫째 날에 여러 방면으로 토론 및 분석을 해놓아서 그런지 너무나 쉽게 설계가 끝났고, 그 후 바로 제작에 들어갔다. 막상 제작을 하려는데 재료가 너무나 한정되어있어 디자인 모델과 기능적 모델. 두 모델로 제작하여 표현하기로 하였다. 제작 내내 서로간의 소통을 하면

서 제작하다보니 작품 제작 자체는 다른 어떤 조보다 빠르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뭐든지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서 일까? 발표용 자료와 주제의 이미지를 제작하면서 조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틀어진 원인이 본격적으로 마무리 작업인 발표용 자료와 이미지 제작을 하며 서로의 역할을 칼같이 분리하여 나누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다. 3 ~ 4시간을 서로가 맡은 바에만 충실하여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막상 마무리가 될 때 즈음엔 서로의 작업뿐만 아니라, 2일간의 강행군과 기타 등등 여러 요소들은 우리의 사이를 약간이나마 소홀하게 하였고, 그 점이 결국 마지막 날에 혼란을 야기하고 말았다.

7월 5일. 대망의 마지막 날에는 각 조간의 주제에 대한 제품 시연과 관련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발표는 조장인 내가 맡게 되었고, 그 외 시연이나 질문. 이러한 부분에서 조원들이 돕기로 결정했었다. 이러한 결정을 굳게 믿고 발표를 시작하는데, 2일간의 작업들을 5분 안에 요약하여 주제, 설계(및 원리), 제작, 시연, 상품성의 순으로 발표하는 것이었다. 이는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발표하며 약간은 재미지고 약간은 진지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중요한 제품에 대한 부분의 발표는 모두 마치게 되고, 그 후 시연을 하려는 순간 혼란이 시작되었다. 그 혼란이란 조원 간의 소통이 실패했는지 조원들이 시연을 도와주러 나오지 않았다. 나는 순간을 무마하는 것이 급하여 조원을 따로 부르지 않고 시연을 하며 보여주고, 질의응답 시간을 눈가리기 식으로 넘기었다. 그렇게 발표는 독단적으로 변하며 조의 프로젝트는 약간은 흐지부지하게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발표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고 융복합 설계 캠프의 마지막 행사인 시상식이 있었다. 아이템의 복잡성은 살렸지만, 조라는 복잡성은 살리지 못한 이유일까? 결국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오히려 상을 받지 못한 부분이 득이 되었는지. 마지막에는 서로의 못했던 이야기를 하며 안부도 묻는 등 소통이 다시 원활하게 되며, 서로간의 좋은 추억을 안은 채 길었던 융복합 설계 캠프의 대단원이 마무리 되었다.

3일간의 짧지만 긴 여정을 끝내며 보고 느낀 점이 많았던 것 같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그들 각각의 가치관과 행동, 시점 등을 보게 된 점이 제일 큰 것 같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험과 그들의 시점을 겪으며, 나 자신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더 멀리를 볼 수 있게 되는 혜안을 만들어주는 듯했다. 또한 발표와 조장 등을 통한 책임감과 리더쉽. 이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기회가 또 내게 찾아온다면 처음의 마음가짐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 같다. 이 글을 쓰는 내내 이 글을 읽을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당신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꼭 그 기회를 잡길 바란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활동적이며, 더 지도자적인 마인드로 참여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